

여행 정보탐색 행태

- ▶ '18년 4월 17일(화) 배포
- ▶ 자료 총 3매

기 관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책 임	김형곤 소장/Ph.D/대학원 교수
문 의	김민화 연구원/Ph.D
이 메 일	kimmh@consumerinsight.kr
연 락 처	02) 6004-7643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

TV방송 프로그램, 해외여행에 영향력 커져

- 여행 정보 찾는 일, 점점 줄어들고 있어
- 관심 정보 찾기 보다는 재미 주는 콘텐츠 선호
- 해외여행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 여행수지 적자에 기여

여행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여행정보를 찾는 일은 줄어들고 있다. 여행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보다는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 여행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으며, TV 방송 프로그램의 역할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TV 방송은 해외여행에 더 영향력이 크며, 여행수지 적자를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진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매주 500명, 연간 2만6천명 조사)에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정보채널을 많이 사용할지 물었다. 여행의 정보채널 8종(여행전문 정보 사이트/앱, 블로그, 커뮤니티/카페, SNS, 지인추천/구전, 여행지 공식사이트, TV방송, 여행상품 구입채널 등)을 제시하고 각각의 이용이 ‘더 늘 것이다’는 비율을 확인하고, '18년 1/4분기의 결과와 전년 동기를 비교했다[그림1].

[그림1] 여행 정보채널 이용의향 ('18년 1/4분기)



국내와 해외를 나누어 앞으로 여행시 더 많이 쓰게 될 정보채널을 물은 결과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선호하는 정보채널의 순서는 일치했다. 여행전문 정보 사이트/앱의 이용의향이 국내여행 시 39.3%, 해외여행 시 4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블로그(각각 36.3%, 39.5%), 커뮤니티/카페(29.3%, 38.2%) 등의 순이었다. 어떤 채널을 이용하는가 보다 더 큰 차이는 해외여행을 준비 할 때 모든 정보채널의 이용의향이 더 높다는 점이다. 해외에 갈 때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18년 1/4분기 결과를 1년 전인 '17년 동기와 비교하면 보다 흥미롭다. ▲전체적으로 국내여행을 위한 정보탐색은 8개 채널 평균 2.5%p로 크게 감소한 반면 해외여행은 그 폭이 훨씬 적다(-0.6%p). 국내여행은 대부분의 채널에서 2%p 이상 감소했으나, 해외여행은 여

행전문 정보 사이트/앱과 커뮤니티/카페 등 두 개 채널에서만 2%p 이상 하락했다. ▲국내와 해외여행 모두에서 증가한 유일한 정보 채널은 TV방송이었고, ▲해외여행을 위한 TV방송의 이용의향 변화(+4.7%p)의 크기는 다른 어떤 수치보다 더 컸다. 즉, 1년 전 보다 TV방송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여행정보 수집의 패턴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행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관심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기 보다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재미 위주의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우선이고, 정보 획득은 부수적인 소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해외여행에서 TV방송과 함께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인 SNS도 그 예이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여행 소비자를 재미로 붙잡아 놓으려는 각종 TV방송 프로그램이 여행 수치 적자에 적잖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추세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는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연간 2만 6천명 조사)을 대상으로 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 에서 볼 수 있으며, 2016-2017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리포트 다운로드 받기](#)).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의
보도자료는 인터넷(www.consumerinsight.kr/travel)에 수록되어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Ph.D
정경식 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jungks@consumerinsight.kr 02)6004-7627